제 목	한번쯤은, 인도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언어청각학부
학 번	2024****	이 름	조*경

보통 여행이란 목적을 갖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제목 그대로 80일 안에 세계일주가 목적이었고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은 제약과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더 나은 세상을 찾으러 여정을 떠났다. 그러나 지난겨울에 떠났던 나의 여행은 목적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훌쩍 벗어나는 여행이었다.

여행의 본질은 '사서 고생하는 것'. 흔히 다녀오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여행보다는 휴양에 가깝다. 자국에서 축적한 고생을 돈으로 환전한 후, 이국에서 여유롭게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음식을 먹고 누리고 오는 휴양.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잔말 말고 지갑을 열라고 재촉하는 메뉴판의 한글 보급으로 언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한국어가 가능한 고기능 직원들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소 높은 시급으로 고용된다. 반면, 내가 다녀온 인도여행은 '고생'이라는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행(苦行)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그럼 난 정처 없이 떠난 인도에서 무엇을 얻어 왔는가?

왜 하필 인도였을까. 상투적 표현이지만, 인도가 날 부르는 것만 같았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인도여야만 했다. 삼 형제끼리 첫 외국여행을 인도로 가보자는 막내의 제안. 입학 전 여유로웠던 시간, 마침 퇴사 신청까지 해놓은 일자리. 여행지는 고를 것도 없었다. 막내의 제안에 삼 형제 전부 눈을 번뜩이며 곧바로 인도행으로 결정했다.

의아한 점은 어째서 인도였나를 생각해 보는 경험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인도는 나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지"라고 한비야 작가가 내게 인식을 심어 둬서였을까.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여긴 적은 없는데 말이다. 혹은, 마음고생이 아닌 극한의 환경에서 '진짜 고생'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나이는 점점 차올라 숨이 가쁘고, 이뤄둔 것도 없이 점점 고갈되어 갔다.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습관적인 무기력증 속으로 침잠해 가고 있던 차,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내 본능이 발동한 것일지도. 나 자신을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투기해 '자력으로 살아남아봐라.' 하고 자체시험을 시행한 것일지도 모른다. 기왕 치르는 시험이라면 여행 난이도 최상으로 악명 높은 인도가 내게 딱 맞는 여행지였겠다. 그렇게 우리 삼 형제는 인도로 향했다.

<첫 도시, 캘커타(Kalkata)>

인도여행 첫 도시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도였던 캘커타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가자 말로만 들었던 혼란에 압도되었다. 차선은 무용지물이었고 백미러 따위는 없는 차가 대부분, 그들에게 교통신호는 운전대의 경적이 전부였다. 인도에서는 새 차를 출고하자마자 백미러를 떼고 경적의 음량을 최댓값으로 조절한다는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 현지인들은 모두가 우리를 과하게 반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반기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상인이 손님 앞에 줄을 서는 이 생경한 모습. 어떤 목적 없이도 현지인들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인도에 오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동생들과 합심해 돈독 오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겨우 적정가까지 흥정한 후 숙소로 향했다. 도착 후 짐을 풀고 일단 목이라도 축이자 싶어 동생에게 "숙소 근처에 편의점 있어?"라고 물은 내게 동생은 피식 웃더니 "형, 인도에는 편의점이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생각보다 고된 여행이 될 것이란 직감이 들었다. 인도는 발을 딛자마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

숙소에서 나와 간디(Gandhi)의 생가, 마더 테레사(Teresa)의 유해를 본 후, 인도 최대의 꽃시장이 위치한 하우라 다리(Howrah Bridge)까지 들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숙소 앞에서 마주친 관리자는 숙소 안에 따로 쓰레기통이 없으니, 우리에게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했다. 우리는 규칙을 따랐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며 우리는 목격했다. 기껏 해봤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꾀죄죄한 맨발의 아이들이 길거리 개들과 까마귀 떼에 둘러싸여 우리가 어젯밤 투기한 쓰레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 옆에 선 관리자로 보이는 한 중년의 남성은 천진한 표정의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하고 있었다. 엄밀한 아동착취. 아수라(阿修羅)였다. 비위생과 무질서는 적응할 수 있었으나 비인권과 부도덕은 견뎌내기 힘들었다. 그때 튀어나온 헛구역질은 오물과 오수에서 뿜어 나오는 냄새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캘커타를 떠난 후에도, 우리는 인도의 모든 도시에서 조막만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을 봐왔다. 뿌연 양잿물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빨래를 하던 도비가트(Dhobi Ghat)의 아이들, 탄두리 화로 앞에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굽고 나르던 암리차르(Amritsar)의 아이들.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우리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생글생글 웃던 순박한 미소였다. 휴양이 아닌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한 나라의 어둡고 추악한 이면이었다.

사진출처 - 본인

<델리(Delhi)의 스님>

델리의 빠하르간지(Paharganj)에는 한국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있다. 나빈이 운영하는 '나빈가게'이다. 한국어를 독학해서 배웠다는 나빈은 서툴지만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준다. 사기가 기본값인 인도에서 양심을 간판에 걸고 장사하는, 고된 인도여행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곳이다.

그곳에서 스님을 한 분 만났다. 해인사에서 27년간 몸담으시고 현재는 가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칩거하고 계신다는 스님. 중 생활을 하시며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앞니가 서너 개는 빠져 발음은 사방팔방 새는 와중에 입담이 어쩜 이리 좋으신지. 우리 삼 형제는 스님의 유머와 입담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배를 잡고 웃었다. 우리가 스님임을 의심하자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속 스님증을 툭 꺼내놓으시는데, 스님에게 지갑이라니. 게다가 고급가죽 지갑이라니! 이리 속물스러울 수가. 스님도 주민등록증같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그러더니 우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하시곤 우리를 끌고 맛집을 찾아가셨다.

빠하르간지 중심에 있는 식당 옥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주문하기도 전에 가방에서 참이슬 빨간 뚜껑 두 병, 골뱅이 두 캔을 꺼내 놓으시더니 다 같이 한잔하자고 외치는 스님. 스님이 은퇴가 가능했었나. 인도에서 한국 스님과 소주를 마시게 될 줄이야. 우린 소주와 골뱅이, 치킨 볶음밥을 해치우고서 2차는 펍으로 향했다. 힌두 국가 특성상 주류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내게 여행 동안의 강제 금주는 버티기 힘겨웠다. 혈관에서부터 알코올을 쏟아부으라는 아우성이 들렸기에 그날은 많이도 마셨다. 스님과 술자리는 금지된 것을 깨부수는 은밀한 짜릿함이 느껴졌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 스님을 만나 생맥주를 연거푸 들이켜는 경험은 정말이지 진귀한 경험이었다.

스님은 인도 북부에 포진된 불교 관련 유적지들을 방문한 후 싯다르타가 태어난 네팔로 가서 성지순례를 마친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거나하게 취한 스님은 내게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기에 조만간 떠나보내야 하는데, 장남인 당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당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아직 두 눈 뜨고 계신대도 벌써 형제자매들이 싸울 조짐이 보인다고. 20대에 출가하여 속세를 떠난 스님은 자신은 유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 하시길래, 본심을 여쭙자 당연히 자기 몫도 챙기고 싶다는 스님. 스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얘기였다. 돈 때문에 가족과도 얼굴을 붉히며 고성으로 싸우는 사람들. 사람 냄새는 지독하다가도, 오랫동안 맡지 않으면 그립고 오랜만에 맡으면 꼬수운 게 묘하다. 그런 스님에게 한국에 가서도 뵙고 싶다고, 연락처를 청하자 스님은 전화번호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인연이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련이 남아 아쉬워하는 내게 말씀하셨다.

스님은 진중하다. 스님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 스님은 지갑이 없다. 스님은 돈을 싫

어한다. 내 단단한 편견을 한 겹씩 벗겨주는 스님에게서는 사람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런 모순에 점점 마음이 동하는 와중 미세먼지 가득한 뉴델리 하늘에서도 꽤 볼만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다.

<인도의 걸인들>

인도여행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을 꼽자면, 어딜 가나 달라붙는 걸인들이었다. 호객하는 상인들과 함께 정말 끈질기게 우릴 귀찮게 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끊임없이 부랑자들이 다가와 때 묻은 두 손으로 굽실거리며 동냥하였다. 평범한 걸인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갓난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 아이들과 함께 구걸하는 어머니, 공해가 가득한 도로, 차량과 차량 사이를 공연장으로 만들어 조그마한 자기 딸에게 곡예를 시키는 아버지… 차마 쳐다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정말, 많아도 너무나 많았다. 어느 한 골목에서는 노숙자들로 붐벼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다.

현지에서 사귄 인도인 친구는 가슴 아프다는 거 알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적선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어차피 걸인들은 전부 지역마다 배치되어 관광객들의 돈을 수금하는 하나의 카르텔이라 하였고 그들이 안쓰러워 적선하는 순간 걸인을 한 명 더 만들어내는 거라고. 처음에는 그들을 보며 동정심이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가시다는 마음이 커졌고 여행의 막바지에는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그런 둔중한 충격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는 내가 낯설었다.

저들을 방치하는 이 인도라는 국가가 미웠고 이 국가의 수반들이 미웠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대했나>

여행 내내 맞닥뜨리는 생생하고 날 선 불행 앞에서 내가 겪어왔던 불행은 화마 앞 촛불처럼 소소해져 버렸다. 거대한 불행 앞에서 난 다리 힘이 풀려 속수무책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인간에게 있어 불행에 위로가 되는 건 오직 타인의 불행뿐이라 했는가. 그들의 압도적인 불행 앞에서 나는 싸구려 위안을 얻었다. 이 얼마나 저질인가! '이런 불행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편이군.' 하고 자기 위안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최하의 위안이란 말인가?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은 그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 '운' 하나뿐이었다.

두 달간의 인도 여행은 긴 여행에 지치기도 했고, 많이 아팠고, 향수병이 일어날 만큼 고된 여행이었다. 그러나 어떤 목적도 없이 기대하지 않고 떠났던 인도는 책 한 권은 가뿐히 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굳은 사고를 부수고 시야를 넓혀주었던, 내 세계를 확장시키게 된 여행이었다.

인도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지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 돈과 노동… 이처럼 모순적이고 답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들을… 의문의 해답을 찾아 나는 또 다른 여행을 떠난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답이 없어도 좋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부서짐을 반복할 것이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